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9월 14일(화) 총 3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 정신건강팀장 유경철 ☎440-1581 • 담당자 심연희 ☎440-1582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자살예방 노력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 경인아라뱃길 시천교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사업 우수정책 선정-
-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강화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공모에 선정 -

인천시가 자살예방과 자살률 감소를 위해 추진한 우수 정책과 적극적인 노력이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자살예방의 날(9.10)을 기념해 발표된 보건복지부 2020년 자살예방사업 평가 결과, 인천시의 ‘경인아라뱃길 시천교 태양광 융합형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우수 정책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자살위험 환경개선 일환으로 시행한 전국 최초의 민·관 협력 사업이다. 투신 자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시천교 125m 구간의 난간 높이를 기존 1.4m에서 2.8m로 높이는 한편, 난간 상부 각도를 안쪽으로 휘게 만들고 최상부에는 회전 롤러를 설치해 난간을 넘지 못하도록 설계해 자살 위험을 줄였다.

또한, 전국 최초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모델인 태양광 융합형으로 설치됐다. 태양광 모듈은 인천 바다색, 정서진 석양색 등 인천색(Color)을 활용해 자살예방과 친환경, 경관까지 모두 확보했다.

이번 우수정책 선정과 정부표창 수상은 인천시의 자살예방 정책이 민·관의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은 물론, 국가 신재생에너지 사업과의 연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한 사례로 인정받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2011년 자살예방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10년 전(2011년) 10만 명당 32.8명으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았던 자살률이 2019년에는 25.9명으로 낮아져 특·광역시 중 최고의 감소율을 보였다.

인천시는 자살 고위험요인 분야를 포함한 종합적인 자살예방정책 추진으로 자살률을 지속적으로 낮추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자살률을 20.9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1년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번 공모에서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응급개입팀을 신설해 365

일 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 핫라인 운영과 응급출동체계를 갖춘 점을 인정받았고,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코로나19 관련 칭찬 릴레이 ‘내 마음의 오아시스’ 사업을 통해 마음건강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았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의 어려움 속에서도 심리지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수행 등에 함께 노력해 주고 계신 기관 및 종사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발전과 시민 정신건강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경인아라뱃길 시천교 ‘자살예방 안전난간’ >

